

광주비엔날레에 이한열 영정 전시 목수 출신 화가 최병수씨

“찢긴 영정은 우리의 자화상”

“이한열의 대형영정을 앞세운 꽃 장식의 운구 행렬이 도청앞 광장으로 들어서자 도로를 메운 군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손을 흔들며 ‘이 열사 만세’ ‘한열이를 살려내라’고 외쳐댔다.”-광주일보 1987년 7월10일자 고 이한열 광주 장례식 기사 중.

이한열 영정은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6월의 기억’이다. 서울과 광주에서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자유를 외치며 했던 이 영정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한열 영정이 23년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다. 당시 이 영정을 그려던 현장미술가 최병수(50·여수시 화정면 백야리)씨가 복원한 이한열 영정을 제8회광주비엔날레(3일~11월7일)에 전시한다.

광주서 23년만에 부활

“전시 허락을 받기 위해 한열이 어머니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죽은 젊은이 (내)자식을 떠나 그렇게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2004년 암 판정을 받고 위의 70%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최씨는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씨의 뜻을 제대로 관람객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여수 백야도와 광주를 오가며 전시 준비를 했다. 당시 영정을 실었던 픽업트럭과 똑같은 차종을 광



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이한열 장례식 영정을 그린 현장미술가 최병수씨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주지역 한 폐차장에서 찾아내 전시장으로 끌고 와, 23년 전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다.

이번에 소개된 영정은 그가 그린 두 번째 작품이다. 이한열 영정을 세상에 내놓을 때마다 그는 분노에 떨어야 했다. 이 영정은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하는 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지우고 감춰야 할 두려운 이미지였다.

“내 삶을 바꾼 그림”

“장례식 당시에 그린 첫 영정은 1988년 9월 누군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사과탄을 터트려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영정테러’를 당한거죠. 제사를 위해 1988년 다시 그린 두 번째 영정도 2004년 6월 칼에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서울과 가평, 여수를 거처를 옮기

면서도 그는 이 두 영정을 고이 간직했었다. 자신의 삶을 바꾼 그림이기 때문이다.

“한열이가 죽기 한 달 전 연세대 만화사랑 동아리 방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참 눈이 맑고 잘생긴 청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후 죽었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2학년 중퇴가 학력의 전부고, 직업은 원래 목수였다. 홍익대 미대생들의 벽화작업을 위해 사다리를 만들어주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인연이 돼 그림을 그리게 됐다.

“미대생들이 한열이 장례식 이를 전에 저 보고 영정을 그려라고 하더군요. 딱 2시간만 자며 작업을 했고, 장례식 당일 아침에 트럭에 못 질을 해서 직접 불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크게 변했다. 민주화 운동 과정에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영정사진을 부탁했고 ‘노동해방도’ ‘장산꽃매’ 등 수많은 걸개 그림도 그렸다.

“그날의 함성 잊지않길”

또 뽕핀 모양으로 얼음을 깎아 지구 운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지구가 녹고 있다’ 연작을 발표하고, 2003년 이라크에서 반전 걸개그림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현재는 백야도에서 반전·평화·환경 관련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영정 사진에는 아직도 칼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많은 관람객이 그날의 함성을 잊지 않고, ‘왜 이 영정이 찢겨져야 했는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목기자 kroh@

가을 태풍 1~2개 더 온다

해수온도 높고 강력한 고기압... 제9호 태풍 ‘말로’ 복상중

■9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주요 태풍

연도	기간	태풍이름	특징	피해액
2003	9.12 ~ 13일	매미 (MAEMI)	기상관측 이래 가장큰, 순간최대풍속 (60%)기록	4조 2224억여원
2006	9.17 ~ 18일	산산 (SHANSHAN)	남부지역과 동해안 중심으로 큰 피해	100억 928억여원
2007	9.16 ~ 17일	나리 (NARI)	제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1591억여원

자료 : 광주지방기상청

지난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주택 침수와 주택 파손, 파수 낙과 등 광주·전남지역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제9호 태풍 ‘말로(MALOU·구슬을 뜻하는 마카오어)’가 일본 해상에서 발생하는 등 9월에도 1~2개의 태풍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오후 3시를 기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470km 해상에서 제9호 태풍 ‘말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태풍 말로는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매 시간당 36km의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다.

특히 ‘말로’는 해수면 온도가 29~30도의 따뜻한 해역을 지나면서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받아 점차 발달할 것으로 보이며,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6일 오후께 제주도 남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로가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6일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하다.

‘말로’와 함께 9월 중 1개 이상의 태

풍이 광주·전남 등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9월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발생한 ‘루사’등 총 8개의 태풍이 지난 2000년 이후 9월 중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다.

9월은 연중 해수면의 수위가 가장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가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 해안 저지대의 경우 침수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말로 이외에도 1개 정도의 태풍이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오는 6일 이후 말로의 진로에 따라 광주·전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비책을 세

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전남지역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전남도가 3일 피해 현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강풍으로 인한 벼 도복 피해가 13개 시·군 499.4ha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신안군이 105ha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고흥 62ha, 영광 60ha 나주 57ha, 진도 53ha, 해남 41ha, 강진 31ha, 장성 27ha, 함평 24ha, 영암 21ha 등이었다. 수확을 앞둔 과수 농가들의 피해도 커 순천(157ha), 나주(64ha), 무안(50.7ha) 등 모두 344ha에서 과수 낙과 피해를 입었다.

/김지율·김보 기자 @dok2000

청소년 확 줄었다

저출산 영향...인구 5명 당 1명 수준 급감

저출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짚어줄 청소년(9~24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 인구는 베이비붐이 일던 1960~70년대에는 인구 3명당 1명 수준이었었는데 비해 2010년에는 5명당 1명 수준까지 급감했다.

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은 전체 인구의 21.1%로 청소년 인구가 정점에 달했던 1978년과 1979년의 36.9%에 비해 15.8% 포인트나 낮아졌다.

2000년에 청소년 인구가 2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도 올해 청소년 인구는 3.4% 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내국인을 뜻하며, 청소년 인구 비율은 2001년 24.1%, 2002년 23.8%, 2003년 23.6%, 2004년 23.3%, 2005년 22.9%, 2006년 22.5%, 2007년 22.0%, 2008년 21.6%, 2009년 21.3%로 지속적으로 줄어오고 있다.

올해 청소년 인구는 1028만8천명으로 1000만명 선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될 경

우 인구 추계상 2015년에는 청소년 인구비율이 19.6%로 줄어들고 전체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25년에는 총 인구 5065만명 중 800만명(15.8%)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0~18세 이하 인구는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1.8%로 1965년의 51.3%에 비해 29.5% 포인트 급감했다.

/연합뉴스

당신만 우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뽕 - 35,000

특대할인

-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일순원 · 각종 세미나 (대·중·소연회장 완비)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 ~ 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오늘 G20차관회의 ▶2면

럭셔리 가을혼수 ▶4면

가을 제철 음식 ▶5면

극장가 ‘추석대전’ ▶10면

e북 가격인하 경쟁 ▶13면

바둑 왕중왕 대결 ▶15면

“ENJOY THE FOOD LIFE”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스테이크의 환상 짝꿍! 와인

저희 베네치아 월드컵점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향 좋고, 맛좋은 고급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으며 **각종샐러드**와 다양한 **스테이크, 해산물요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베큐 폭립 **바닷가재 안심스테이크** **메로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월드컵점 OPEN

패밀리레스토랑 (since 1988)

베네치아

www.venezia.co.kr

대소모임을 위한 단체(40~70석가능)

베네치아 20%할인 및 포인트·적립·결제카드

SK멤버십카드 / OK Cash Bag신세계포인트카드 /
광주은행비자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월드컵점 062) 675-6636

※모아골프연습장1층※

- 본점 062) 227-9363
- 롯데점 062) 232-7370
- 신세계점 062) 360-1981
- 목포점 061) 283-2720
- 천안점 062) 971-7654